

중소기업, 천연가스 가격 “허리뼨다”

2008년 10% 인상 경영난 ... 추가인상 자제 및 개별소비세 면제 요구

산업용 천연가스의 수요기업들이 높은 가격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경범 동부제철 인천공장장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월23일 인천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4개월 전에 인상한 천연가스 가격을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2008년 11월에는 정부가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가격을 올리면서 소매가격이 608원/m³으로 약 10% 인상됐다.

김경범 공장장은 “2008년 11월의 요금 인상으로 인천기업들은 추가 부담이 연간 280억원에 이르고 다른 중소기업들은 3700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며 “가스 도매요금 추가인상을 재고하고 개별소비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간담회에서 수집된 과제들을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월 대구·경상북도 지역을 시작으로 진행된 손경식 회장의 지역 상공인 간담회는 인천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전국 9개 권역에서 상공인 400여명이 참가해 100여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4>